

이덕일의 '역사의 창'



일이관지(一以貫之)의 역사 인식

일이관지(一以貫之)는 하나로써 모든 것을 꿰뚫어 본다는 뜻이다. 일관(一貫)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다. 이는 공자가 제자 삼(參), 즉 증자(曾子)에게 한 말로써 '논어(論語) '이인(里仁)편에 나온다. 공자가 '삼아, 내 도는 하나로써 꿰뚫었다'라고 말하자 증자가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 공자가 나가자 문인들이 '무슨 뜻이나'고 물었다. 증자는 "선생님의 하는 충(忠)과 서(恕)일 뿐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이 시대의 마지막 선비 중 한 분이었던 이재호 선생은 이 구절에 대해 "중심(속마음)이 '충'(忠)이 되고 여심(如心:내 마음과 같이 함)이 '서'(恕)가 되니 중심으로 남을 섬기는 것을 '충'이라 일컫고, 다른 사람의 마음과 같이 하는 것을 '서'라 일컫는다"(이재호, '논어정의')라고 풀이했다. 공자의 일이관지가 증자의 해설대로 '충'과 '서'를 뜻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이는 공자의 답이 아니라 증자의 풀이기 때문이다. 공자의 일이관지를 요즘 말로 하면 한

가지 자로 사물을 재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요즘 우리 사회가 기준이 무너져, 극도로 분열된 이유는 두 개의 잣대로 사물을 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같은 행위를 놓고도 상대방 진영의 경우는 밀리미터(mm) 자로 비난하고, 자신 진영의 경우는 미터(m) 기준의 자로 옹호한다. 그러니 과거 같으면 사과했을 객관적 잘못도 자기 진영의 사람들에게 돌려갈지는 금을 보고 하늘의 뜻을 헤아려 대한 잇단 망언 등이 이런 경우이다. 그중에서도 심각한 것은 역사 인식이다. 거울로 삼아 본받을 만한 모범을 귀감(龜鑑)이라고 하는데, 이는 역사라는 뜻으로도 쓰인다. 고대 동이족 국가였던 은(殷)나라에서 거북 껍데기를 불에 쪄서 갈라지는 금을 보고 하늘의 뜻을 헤아렸던 데서 나온 말이다. 하늘의 뜻이 돌이 아니듯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도 하나여야 한다. 근·현대사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고대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같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두 개, 혹은 세 개의 잣대를 가지고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다. 무엇보다 역사 학자들이 그러니 일반 국민들을 탓할 수도 없다. 조선총독부가 한국인의 역사 인식을 왜곡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 식민사학, 곧 조선총독부 사학이다. '임꺽정'의 작가 벽초 홍명희의 아들인 국어학자 홍기문은 북한에서 발행하던 '역사문제'(歷史問題)에 '조선고고학에 대한 일제 어용학설의 검토'(1949)라는 글을 실었다. 이 글에서 홍기문은 일제 식민사학의 핵심이 두 가지인데, 그 하나가 한사군 '낙랑군=평양설'이고 다른 하나가 임나지 곧 가야라는 '임나=가야설'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1962년도에 리지린의 북경대 박사학위 논문인 '고조선 연구'를 출간하면서 '낙랑군=평양설'을 폐기시키고 '낙랑군=요동설'을 채택했다. 또한 1963년 김석형이 '삼한·삼국의 일본령도 분국설'을 발표하면서 '임나=가야설'은 폐기되고, 임나는 가야계가 지금의 일본 오키야마(岡山)현에 세운 옛 기비국(吉備國)이라고 정리했다. 그런데 남한의 강단 사학계는 광복 70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낙랑군=평양설'과 '임나=가야설'을 이분법 정설이라며 고수하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한 한 남한은 여전히 조선총독부 치하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입만 열면 친일 청산을 부르짖는 일부 정객들과 역사학자들이 이 문제에 다다르며 조선총독부 학설을 옹호하는 모순된 행태를 보인다. 두 개의 자를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다. 이런 저런 변명을 늘어놓지만 그 핵심은 자신과 자신이 속한 집단의 소리(小聲)를 위해 대의(大義)를 저버린 것에 지나지 않는다. 조용한 곳에 혼자 앉아 가슴에 손을 얹고 지금 자신의 모순된 행태가 백암 박은식 선생, 석주 이상룡 선생, 단재 신채호 선생 등의 역사관과 삶에 부끄럽지 않은가 반문하면 답은 자명할 것이다. 역사학계에서 이 사회에 귀감을 제시하지 않는 한 우리 사회의 진정한 통합은 요원하다. <신한대 대학원 교수>

의료칼럼

치료해도 낫지 않는 치아



황호길  
조선대 치과병원 치과보존과장

환자들의 상당수가 신경 치료를 여러 차례나 해도 낫지 않고 오히려 불편하다며 병원을 찾아온다. 요즘은 의료 전달 체계가 보편화돼 있어 상급 병원에 올 때는 진료 의뢰서를 지참하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환자가 개인 병원을 거치지 않고 일반적으로 대학 병원을 방문한 경우도 더러 있다. 이러한 이유는 장기간 신경 치료 중인데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은데다 오히려 음식을 씹기가 불편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상급 의료 기관으로 보내지는 진료 의뢰서는 환자의 의료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 합병증 등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특

히 진료 의뢰서를 지참한 환자는 이전에 진료를 받던 치과 의사와 진료에 대해 이해하고 상의했기 때문에 후속 진료가 원활하다. 반면에 진료 의뢰서 없이 일방적으로 내원한 환자는 이전 치료를 맡은 치과 의사를 불신하는 마음이 있고, 후속 진료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해 비협조적이며 분쟁이 야기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그동안 치과 대학 병원에 의뢰된 환자 중 '치료를 해도 잘 낫지 않은 치아'에 관해 그 원인을 찾아보고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무리 신경 치료를 여러 번 해도 잘 낫지 않는 경우는 원인 치아에 대한 진단이 정확히 내려졌는지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치아의 통증이 너무 심하면 환자는 어느 치아가 아픈지 정확한 위치를 분간하기가 쉽지 않다. 심지어 위턱에 있는 치아가 아픈데 아래턱에 있는 치아가 아프다고 고집부리는 환자도 가끔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치료하고 있는 치아의 치료 과정에 특별한 원인이 없다면 다른 치아가 아픈 지 의심해

보고, 그에 따른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간의 치아 형태는 사람마다 다르며, 그에 따른 치아 내부의 신경관 형태도 매우 다양하다. 대학 병원에 의뢰된 환자의 대부분은 신경관의 형태 이상, 신경관이 뿌리 끝에서 분리된 경우, 신경관이 과도한 석회화로 막힌 증상, 신경관이 30도 이상 구부러져 있는 경우이다. 뿐만 아니라 신경 치료 도중에 발견되는 예기치 않은 치아의 미세 균열, 치아에 사용된 기구의 파절 또는 과거 신경 치료한 치아에 통증이 재발해 다시 치료하는 경우는 매우 난이도가 높은 진료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와 판단에 따라 처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 앞서 언급했듯이 진단 중에 치과 의사를 곤혹스럽게 만드는 것은 환자가 느끼는 치아 통증이 사실은 다른 부위가 아픈데 마치 치아가 아픈 것처럼 느끼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상악동염(축농증)으로 놓이 찬 경우 압력에 의해 치아가 울리고 아픈 것으로 착각하여 치과를 찾

는 경우가 잦다. 뿐만 아니라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주로 발병하는 삼차 신경통은 마치 치아가 아픈 것으로 오인할 수 있어 치과를 전전해 다니면서 여러 개 치아에 신경 치료를 받은 경우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증상이 애매한 경우는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구강 내과 전문의에게 의뢰해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치과 치료에 현미경이 도입되면서 고도의 정밀한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하게 되었다. 현미경의 밝은 조명과 확대상 및 영상 장비를 이용하여 치료해도 잘 낫지 않는 치아의 원인을 찾아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를 사진 촬영하거나 녹화하여 환자나 의뢰한 치과 의사에게 설명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면 어렵지 않게 통증을 없앨 수 있다. 만약 형태나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아픈 원인을 찾아다시 신경 치료를 해도 계속 불편한 경우에는 현미경을 이용한 수술적인 방법을 통해 해결이 가능한 만큼 현미경을 갖춘 치과 보존과 전문의에게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고

이재영, 손흥민, 방탄소년단 그리고 재미있는 공부



박석주  
전남교육연구정보원 원장

2018-2019 프로 배구 여자부 통합 우승을 이끈 흥국 생명의 이재영이 챔피언 MVP에 이어 정규 리그 MVP까지 만장일치로 선정되었다. 여자 배구의 '이재영 시대'를 연 것이다. 통합 우승 후 TV 인터뷰에서 '팀의 에이스로서 어깨가 무겁지 않는가? 부담스럽지 않는가?'라는 물음에 그는 "그렇지 않다. 나는 배구가 너무 재미있다"라고 말했다. 이 말은 이재영이 인터뷰할 때마다 자주 한다. 그 래서인지 그의 배우하는 모습을 보면 신나게 뛰고, 춤추고, 웃는 모습을 자주 본다. 178cm의 다소 단신임에도 활활 날아 다닌다. 정말 배구를 재미있게 한다. 손흥민 선수가 지금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맹활약하며 소속팀 토트넘을 유럽 챔피언스 리그 결승까지 올려놓았다. 아시아는 물론 세계가 그에게 열광하고

있었다. 일부 언론이 한국 축구 국가 대표와 영국 프리미어리그 선수로 겹쳐 뛰면서 축하하는 것 아닌가라고 제기해 논란이 있었다. 그럴 때마다 손흥민은 "이런 경우가 힘들 수 있지만 사실 나는 재미있다. 이런 기회가 많이 오지 않는다"며 "경기 자체를 재미있게 즐기고 있다"고 말한다. 이런 자세가 그를 세계적인 스타로 성장시키는 역량일 것이다. 방탄소년단(BTS)의 새 앨범 타이틀 곡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뮤직 비디오가 공개된 지 37시간 만에 유튜브 실시간 조회 1억 뷰를 가볍게 돌파하며 세계 각국의 앨범 차트를 석권하고 있다. 세계가 이들에게 열광하는 것은 '선한 영향력'이라는 가치를 내걸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그들의 음악에 담고, 유니세프의 청소년 폭력 근절 캠페인에 참여하는 등 그 가치를 실천하려는 진정성을 세계 젊은이들에게 보여주는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인지 미국 유명 시사주간지 타임(TIME)은 2019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으로 방탄소년단을 선정했다. 특히 방탄소년단이 UN에서 한 연설은 세계 각국의 학교 시험과 과제물에 등장하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리더 RM(김남준)은 유엔 연설에서 '너

자신을 사랑하라(Love Yourself)'를 강조하고 '가슴 뛰게 하는 것'을 하라면서 세계 젊은이들과 공감을 형성했다. 음악을 통해서 세계 젊은이들에게 자신의 삶에 대한 혁신을 이야기한 것이다. 우리는 이재영과 손흥민, 그리고 방탄소년단을 통해 우리 교육이 가야할 방향을 배운다. 아이들이 '재미있게 하는 것', '잘할 수 있는 것', '좋아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가슴 뛰게 하는 것'을 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삶의 교육이요, 학생들을 행복하게 하는 교육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학교에서 적용하고 있는 2015 교육 과정 명분의 하나도 '배움이 즐거운 수업'이다. 우리 교육이 그동안 지나치게 많은 지식의 습득과 시험에 몰입함으로 인하여 암기 위주의 수업이 되고, 그러다 보니 수업도 재미가 없었다. 공부 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면서 학습의 흥미도·행복도는 세계 최하위를 맴돌았다. 그래서 새 교육 과정은 학교 수업이 재미 있도록 학생 참여형 수업과 프로젝트 수업, 토론 수업, 협력 수업을 강조한다. 그 수업이 학교에 정착하려면 평가 방법도 프로젝트 해결 과정과 토론의 장면, 협력의 순간을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객관식 선다형의 대학 입시가 이를 가로 막는다. 교육부는 대학 입시의 개편도 교육 과정 개정의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학종)'의 신뢰성 시비에 막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신뢰성' 문제가 교육 과정의 정상화를 가로막는 형국이다. 우리 아이들이 재미없는 수업과 삶에 연결되지 않는 지식 습득에 치중하는 비정상적인 'SKY캐슬'에 언제까지 매달리게 해야 하는가? 전남교육청은 우리 학생들이 학교 가는 것이 즐겁고 공부가 재미있는 학교를 위해 교실 혁신과 수업 혁신, 교실 공간의 재구조화 등을 미래 학교와 연계, 구축해가고 있다. 필자가 근무하는 전남교육연구정보원도 연구와 자료 개발, 교수 학습 지원 등 학생들의 재미있는 공부와 행복한 학교 생활을 지원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 기초 학력을 튼튼히 하는 가운데 이재영과 손흥민, 그리고 방탄소년단이 말하는 '재미'와 '좋아하는 것'과 '가슴 뛰는 일'이 모든 학교들에 넘쳐나 입시 지옥의 'SKY캐슬'이 아닌 공부가 재미있는 '아 이틀 천국'으로 학교가 변화하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 본다.

社說

D-50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준비에 만전을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막(7월 12일)이 오늘로 꼭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광주시와 대회 조직위원회는 경기장과 선수촌 등 시설 건립과 교통 대책 수립 등 막바지 손질맞이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대회 흥행을 위한 홍보에도 총력을전을 펴고 있다. 현재 경기시설 공사는 장거리 수영 종목인 오픈 워터 경기장을 제외하고는 전체 공정률이 80% 이상으로 순조로운 상황이다. 선수 및 임원 4000여 명과 미디어 관계자 2000여 명이 사용할 선수촌 공사는 사실상 마무리돼 다음달 20일 문을 열 예정이다. 선수들의 출입국 및 수송 대책도 차질 없이 준비 중이다. 인천·김포·무안 등 세 개 국제공항을 공식 공항으로 지정해 1만 5000여 참가자들에게 출입국 편의를 제공하고, 수송 버스는 물론 KTX 임시 운행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다. 대회 진행을 도울 1만2500명의 '시민

서포터즈' 출범에 이어 30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도 오는 27일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다. 대회 흥행의 남은 관건은 북한 선수단의 참가다.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광주시는 정부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최근의 남북 관계 경색이 걸림돌이긴 하지만 지난 두 차례의 대회에 북한이 연속 참가했다는 점은 희망적이다. '평화의 물결 속으로'라는 슬로건처럼 이번 대회가 남북 북이 하나 되는 평화의 축제로 치러진다면 대회 성공은 물론 남북 화해에 훈풍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막판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광주는 4년 전 하계유니버시아드를 '저비용 고효율'의 흑자 대회로 치러냈다. 그 바탕엔 시민들의 참여와 협조가 있었다. 그러한 지역민의 저력을 다시 한번 발휘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광주의 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5·18 국립묘지 휠체어 참배도 어려워서야

어린이·장애인·노인 등 교통 약자들이 쉽게 참배할 수 있도록 국립 5·18민주묘지의 시설을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이 되는 내년에는 대규모 참배객이 예상되는 만큼 묘역의 접근성을 높이고, 엄숙하되 무섭지 않는 추모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립 5·18민주묘지는 현재 조성(1997년 완공)된 지 20년 이상이 지나면서 바닥 곳곳이 꺼지거나 파손된 채 방치되고 있다. 묘역으로 통하는 일부 통로는 급경사로 인해 휠체어를 탄 장애인 참배객은 보호자의 도움 없이 이동 자체가 어려운 상태다. 또한 묘역에 안장된 5·18열사의 영정을 모신 유영 봉안소는 어두운 내부 조명으로 인해 무서움을 느낀 어린이들이 참배를 꺼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광주일보 취재진이 국립 5·18묘지를 직접 찾았을 때는 장애인 60여 명이

휠체어를 타거나 불편한 몸을 이끌고 힘겹게 묘역을 오르고 있었다. 이들은 전통 휠체어를 뒀음에도 불구하고 가파른 경사 탓에 금방이라도 뒤로 넘어질 듯 불안해 보였다. 추모탑에 한화한 뒤 참배를 위해 묘역을 올라가려 했던 일부 장애인들은 제1묘역 진입로에 설치된 가파른 경계석 탓에 참배를 포기하기도 했다. 명색이 국립 시설인데 어찌 이렇 수가 있을까. 장애인의 이동권은 한 나라의 복지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다. 더군다나 민주·인권 도시인 광주에서 교통 약자들의 참배를 제한하는 장애물이 방치돼 있다는 건 수치가 아닐 수 없다.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에게 공포심을 줄 수 있는 유영 봉안소의 분위기도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정부와 광주시는 유기적인 협조로 낙후된 시설과 장애물에 대한 개선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내년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에는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참배할 수 있도록.

無等鼓

2018년 노벨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한 폴 로머 뉴욕대 스티븐경대학원 교수의 '신성장 이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는 노동과 자본이 경제성장을 이끄는 핵심이라고 보는 전통 경제학과는 달리 연구·개발(R&D)로 축적된 기술과 지적 자본 및 혁신이야말로 경제성장을 이끄는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도자' '노동' '자본'이라는 전통 경제학에서의 생산 3요소를 그는 '사람' '아이디어' '지식'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으로 바꿔 제시하기도 했다.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가 '신성장'을 도모하기 어려운 여건이라는 것이다. 사람·아이디어·지식이라는 요소는 과거 익숙한 방식으로, 즉 속성(速成), 촉진(促進), 압축(壓縮), 불공정(不公正)으로 얻어 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속적인 투자, 철저적 정당성, 공정한 룰, 평평한 운동장 등 필수 조건들이 채워져야만 이들 요소들은 만들어지고 기능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공정 경제' '혁신 성장'과 함께 추진한 '소득 주도 성장' 역시 저임금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는 좋았지만, 그 속도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빚벌치면서 난관에

부딪혔다. 소득 주도 성장과 대비되는 것이 '낙수 효과'란 거다.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소득 증대가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이나 저소득층의 소득도 높여 준다는 논리다. 하지만 특허배리 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데다 고도 성장기이나 가능한 날은 정책이라 하겠다. 2000년대 들어 경제 성장을 주도한 것은 대도시 아파트로 대표되는 부동산이다. 고소득층과 건설·금융·투기 자본이 뛰어들어 주거 수단인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리자 마치 경제가 성장한 것 같은 효과를 냈다. 하지만 이는 부의 편중과 양극화를 부추기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기존 우리나라 경제성장 방안은 하나같이 폴 로머 교수의 신성장 이론과는 거리가 멀다는 의미다. 전남도가 최근 지역 출신 전직 고위 관료, 산업계 전·현직 CEO 등 11명으로 구성된 '신성장 추진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경험이 풍부한 시니어들의 지식과 아이디어를 얻기 위함이라는데 아무쪼록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자주 새로운 시도를 선보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윤현석 정치부 부장 chadol@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 1(일간)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편집부	220-0632	체육부	220-0633
편집부	220-0663	예향부	220-0692
편집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편집부	220-0642		
경원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